

직물용어 해설-02

* 니논 보일(Ninon Voile)

면 보일을 말한다. 니노와 비슷하다. 정소면사 가스 모소를 한 가는 실을 사용하며 경위사 똑같이 Ne 200's/2를 사용하고 밀도는 80×72/inch로 제작한다. 또는 Ne 100's를 사용하며 밀도는 80×72로 한 것 등이 있으며 어느 것이나 가장자리의 실은 테이프 상태로 되어 있다. Ninon은 원래 겹으로 만든 평직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에서 기원하며 이브닝 드레스, 스카프, 머플러, 모자 장식 등으로 사용한다.

* 다마스크(Damask)

모, 견, 면, 레이온, 모헤어, 아마,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경주자와 위주자를 조합시켜서 바닥과 무늬를 나타낸 직물로써 자카드로 제작한다. 직물의 표면은 경주자로 제작되어 있고 무늬는 위주자로 제작되어 있다. 광선이 표면에 닿으면 경주자의 부분과 위주자의 부분에서는 광선을 반사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닥과 무늬 어느 쪽 한편이 빛나게 보이고 다른 쪽은 어둡게 보인다. 그 결과 경위사에 같은 실을 사용하여도 바닥에 무늬가 부출 되어 보인다. 바닥과 무늬의 크기는 표리 모두 같다. 조직은 통상 2비5매 주자이다. 경사와 위사에 서로 다른 색의 색사를 사용하여 바닥과 무늬의 색을 표리에 바꿔 넣은 것도 있다. 무늬를 위능으로써 나타낸 것도 있다.

다마스크는 고대 중국의 錦(비단)의 제법이 인도→페르시아→시리아→그리스→이탈리아를 지나 구주로 넓혀진 것이다. 원래는 색사라던가 금은사로써 제작하고 꽃이나 포도나 동물 등의 복잡한 모양을 아름답게 나타낸 수직 견직물이었다. 로마 시대에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Damascus, 현재의 Damas)의 제품이 가장 우수하였다. 의장이라던가 모양도 다른 산지의 것을 압도하였다. 그러한 이득 때문에 교활한 상인들은 다마스쿠스 산이 아님에도 damask라던가 damascene라는 이름을 붙여 당시의 후진국에 판매하였다. 이것이 이윽고

유럽에서 문직물의 이름이 되었다. 용도로는 인견, 견, 모, 모헤어 등을 사용한 것은 벽걸이, 실내 장식, 커튼, 드레스, 침구 등으로 면, 스프, 마 등의 섬유를 사용한 것은 테이블 클로스, 손수건, 냅킨, 롤 타월 등으로 사용한다.

* 다운즈(Downs) : 승선용 등에 사용되는 후직으로 된 수방 모직물이다. 경사는 Ne 18's의 2합사를 면사로, 위사는 굵은 방모사를 사용하고, 2.54cm사이 에 36×28올로 하였다. 이것은 4장 종광의 능직으로 제작하여 강하게 축융하여 기모를 내어 모포, 외투 감으로 쓰인다.

* 다이아퍼(Diaper)

조직은 조안직(鳥眼織)으로 면, 레이온, 리넨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직물 면에는 한 가운데 작은 움푹패인 점이 있는 능형이 한 면에 나타나 보인다. 그 조합과 제직사가 직물에 흡수성을 부여한다. 표백 후 풀물 마무리하여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이면을 기모한 것도 있으나 이것은 특수한 넬로써 생각되어진다.

Diaper는 원래 일본의 능(마름), 거(양어깨에서 양 겨드랑에 걸쳐 “+”자 모양으로 엮매어 일본 옷의 옷소매를 걷어 매는 끈)등에 유사한 모양의 명칭이다. 조안직은 작은 다이아몬드 사문이라고도 하는 맥조직이다. 석목직(돌결직)이라고도 한다. Diaper 라고 하는 영어는 기저귀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기저귀에 능형의 바닥 모양을 한 조직의 직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저귀가 diaper 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기저귀가 그것과는 관계없이 diaper 엮는가는 알 수 없다. 주 용도는 타월, 기저귀 등이다.

* 다이에거널(Diagonal)

능선이 45각도로 능선모양을 뚜렷하게 나타낸 직물, 슈트, 슬랙스용

* 덕(Duck)

면, 리넨, 라미, 비닐론, 비닐리덴,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한다. 즈크라고도 한다. 덕과 캔버스를 합하여 범포라고도 한다.

면범포를 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경위사에 ㄷ채번수의 면사라던가 리넨 등을 사용하여 뽁뽁하게 제작한 특히 튼튼한 두꺼운 직물이다. 면 덕은 제직사로 보통 10's의 생면사를 사용한다. 8's, 12's, 14's 등의 태번수도 사용된다. 이것을 2합 내지 8합하여 경위사로 사용한다. 원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으나 고무도포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 경사에 흰 실과 적색이나 청색으로 사염한 줄무늬 사를 배열하고 위사에 백색을 타입하여 폭이 넓은 세로 줄무늬를 제작한 것도 있다. 창외 햇빛 가리게 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닝(awning duck)이라고 한다. 덕의 어원은 천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의 doek와 같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즈크라고 부르는 것도 많다. 영어의 duck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아마 또는 대마 제품의 울이 많은 범포 원단에 오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단을 duck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슬렉스, 닷, 천막, 여과포, 구두천, 덮개, 건축 현장 덮개 등으로 사용한다.

* 테피터(Taffeta)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한 평직으로 테피터에는 면 테피터, 인견 테피터 및 합성섬유 테피터가 있다. 교직도 있다. 견 테피터는 견연직물로써 경사에 제연의 정련 표백이라던가 연염 견사를 위사에 편연의 정련 표백이라던가 연염 견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작한다. 경사에도 편연을 사용하기도 하고 위사에도 제연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무게는 38g~60g/m² 정도가 많다. 경사의 밀도를 조밀하게 하고 위사를 굵은 울의 실로 하기 때문에 직물 면에 횡무가 마타난다. 같은 실을 사용한 정련직물로써 능직으로 제작한 것을 능테피터라고 한다.

아름다운 색사를 사용하여 옥충, 격자, 세로줄 무늬 등으로 제작한 것이 많다. 위사라던가 경위사에 옥사를 사용한 것을 옥테피터라고 한다. 그 외에 위사에 인견사, 견방사, 면사, 폴리에스터/면 혼방사 또는 이들의 매듭사를 타입한 교직물도 있다. 인견 테피터는 일본에서는 인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30inch 사이의 경사 총 올 수가 2,800올 정도의 것으로 가장 흔한 제품이다. 통상 경위사에 120d의 무연의 비스사(비스코스 인견의 광택사)를 사용하고 위사 타입을 56올/inch 정도로 하여 제작한다. 제작 후 표백, 무지 또는 날염한다. 자카드로 무늬를 나타낸 것을 문직이라고 부른다. 아세테이트 태피터는 인평에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경사 밀도가 많고 경위사의 굵기의 관계로 호백풍의 스효과는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 많다. 따라서 모아레 마무리한 것 즉 모아레의 모아레 효과는 우수하다. 역시 아세테이트는 열가소성이기 때문에 한번 부여한 모아레 모양은 세탁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세테이트 태피터에는 견명하는 것이 많다. 경위사에 각각 다른 색사를 사용하여 무지로 제작한 것을 옥충 태피터라고 한다. 태피터(Taffeta)는 방적한다고 하는 의미의 페르시아어의 taftah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여성복, 이브닝 드레스, 가운, 드레스, 블라우스, 폐치코트, 슬리브, 브래지어, 내의 실내복, 커튼 베게, 스커트, 깔개, 안감, 리본, 가방, 상자·소품의 안감, 남방 민족의 상의 사론, 인형의 옷, 차량의 갓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다후다로 잘 알려져 있다.

* 담요(Blanket)

양모, 면 또는 인조섬유나 그 외 혼방사를 사용한 능직 또는 평직의 기모 직물을 말하고 모포라고도 한다.

* 당목(Grey cotton sheet)

조포의 일종으로 경사, 위사에 Ne 20's 이하의 단사를 사용한 면직물이다.

* 더매스틱(Domestics)

Ne 20~30's 정도의 실을 사용하여 바닥을 평직으로 한 거친 줄무늬 또는 바둑무늬 직물을 말한다.

* 데님(Denim)

면, 레이온, 비닐론,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하여 경사에 인디고로 염색한 10's~14's의 태사를 위사에 12's~16's의 표백사를 사용하여 2/1 3매능이라던가 3/1 4매능으로 제작한다. 경사의 색상은 남색 외에 적색, 쥐색, 다갈색

등이 있다. 2/1 이라던가 3/1 능직이기 때문에 표면에 경사가 많이 나타나고 따라서 염색된 색이 진하게 나타난다. 안쪽은 표백사인 흰 위사가 많이 부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인다. 세로 줄무늬라던가 격자를 나타낸 줄무늬 데님도 있으나 이것은 치밀한 조직이기 때문에 칼렌더링에 의하여 매끄러운 직물 면으로 마무리 하여 촉감도 부드럽다. 경사에 좌연 단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문직으로 우능으로 나타내서 능선을 눈에 띄도록 한 것이 많다.

경사라던가 위사에 올리 나일론 등 신축성이 있는 제직사를 사용한 스트레치성이 있는 것도 있다. 요즈음에는 경사에 면, 레이온 등의 셀룰로스섬유를 위사에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하여 인디고칼라의 반응성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하면 경사만 착색되어 데님과 같이 염색할 수 있어 교직물의 염색에 활용하고 있다. 표면을 가볍게 기모하여 마일드 서지 품으로 마무리한 것을 브러시드 데님(brushed denim)이라고 한다. 얇은 데님은 스포츠 데님이라고 하며 침염 또는 날염하고 또 그 위에 부드러운 가공을 하여 야외복, 가구용 등으로 사용한다.

덩가리(dungaree)는 데님과 사용하는 실은 같으나 표백사를 경사에 염색사를 위사로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뒷면 백색 데님(white back denim)
- ② 위사에 흑색의 실과 표백하지 않는 굵은 실을 꼬임을 준 모틀사(mottle and twist denim)
- ③ 다갈색으로 염색한 경사를 이용한 갈색 데님(brown denim)
- ④ 위사에 붉게 염색한 위사를 위입한 레드 백 데님(red back denim)
- ⑤ 흑색염을 한 위사 등이 있으며
또 이들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 ① 의류용 데님(clothing denim)
- ② 실내 장식용 데님(upholstery denim)
- ③ 가구용 데님(furniture denim) 등이 있다.

④ 진(jean)은 굵은 실로 사능선을 낸 능직 면포로써 경사 표면 면직물이다. 1/2 좌향 능직이 진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영국의 진 클로스는 1/2 위면직인데 리넨 직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표백, 염색된다. 면이나 모를 원료로 한 이러한 이름의 다른 직물이 있는데 가격이 싼 의복, 블라우스, 유니폼에 사용되는 직물이다.

어원은 제노아(자누아, 제느스)로부터 유래하였다. 자느(jane)는 14~15세기의 영국의 주화이름이다. Denim의 어원은 프랑스어으로써 serge de Nimes이다. Nimes(님)은 프랑스의 지명이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는 님 지방의 서지라고 하는 것이다. 영어로 도입된 이후 앞부분의 serge가 떨어져 나가 de Nimes의 음만이 남아서 denim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덩가리(dungaree)는 힌두어의 dugri에서 유래하고 있다. 원어는 동인도 산의 두꺼운 면포로써 주로 하층 계급이 착용하는 의류용 원단을 가리킨다. 주로 군복, 작업복, 모자, 아동용 바지, 여성슬랙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 도네걸(Donegal twill)

아일랜드 도네걸 지방에서 만든 HBT의 일종이다.

모, 레이온, 아세테이트, 면,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평직, 사문직으로 제작하는데 원래 아이리슈 트위드(Irish tweed) 라고 불려져 아일랜드 빈농의 부업으로써 제작된 것이다.

아이리슈 양모를 수방하여 방직한 방모사를 사용하여 수직기로써 2/2 능으로 제작하여 왔다. 제작사는 섬도가 가지각색인 늘어져 처진 매듭이 많기 때문에 늘어져 처진 매듭도 여러가지로 되어 있다.

제작사의 섬도 불균일이나 이색의 늘어져 처진 매듭은 당연히 직물면에서도 나타나 촌스러운 맛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의 것은 이러한 수직의 모직물을 모방한 제품이다. 방직 공정 중에 통상 경사에는 백색, 위사에는 청색, 녹색, 적색, 황색 등의 색상이 있는 늘어져 처진 매듭이 만들어지도록 각각의 색상으로 염색한 양모 섬유를 방직하

여 만든 태번수 쌍사를 사용한다. 조직은 평직이라던가 사문직이다. 평직은 홈스펀의 일종, 사문직은 트위드의 일종이라고 보아도 좋고 외관, 촉감, 품미 등은 아주 근사하다. 다만, 도니골에는 청, 녹, 적색 등의 매듭이 많이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이 이러한 직물의 현저한 특징이다. 조직은 사문직인 경우에는 삼형이 많다. 바닥의 색조는 농색인 감색, 다갈색, 쥐색, 흑색 등이 보통이다. 운동복, 여성용 오버, 슈트 등에 사용한다.

* 도비 변화직(Fancy Dobby Weave)

모, 견,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아크릴, 비닐론,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도비에 의한 개구 장치로 제작한다. 사용하는 실은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섬도의 무연사 또는 연사로써 제작한다. 도비로써 제작하기 대무늬 종광수는 24매 정도이다. 따라서 그다지 큰 모양의 무늬는 없고 비교적 작은 무늬 규칙 바른 기하학적인 모양이 많다. 모양을 나타내는 방법도 모양 그것도 천차만별이다. 무지염이라던가 날염한다. 사염한 것도 많다. 여성용, 아동복, 남성용 셔츠 등에 사용된다.

* 도스킨(Doeskin)

모,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하는데 주로 최고급의 방모 직물로써 경위사에 메리노 양모의 방모사를 사용하여 통상 5매 경주자로 제작한다. 8매 주자도 있다. 제작후 강하게 축융 한다. 이어서 가볍게 기모하고 그 잔털을 한쪽으로 눕혀서 전모하고 더욱이 증기를 쪼면서 강하게 압융한다. 마무리는 비버 마무리이다. 마무리 제품은 유연하고 광택이 있다. 모직물로써는 중 정도의 무게의 것이다. 일본에서는 도스킨은 경사를 소모사, 위사를 소모사라던가 방모사로 한 것이 많다. 조직은 5매주자라던가 위이중직으로써 제작후 도스킨 마무리(비버 마무리, Beaver finish)로 한다. 흑색으로 염색한다.

Doeskin은 암사슴의 모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촉감과 외관의 품미로부터 이러한 이름이 유래한다. 예복, 신사복, 제복, 여성 슈트, 오버, 코트의 안감, 운동복 등이다.

* 도티(Dhoties)

인도에서 힌두교도 남자가 입는 면직물의 일종으로서 변사의 나비가 0.3~0.7cm가 되는 직물

* 도티드 스위스(Dotted swiss)

론과 비슷한 얇은 면직물로서 작은 점이 동ㅇ리한 간격으로 배열된 직물

* 두둑직(Rib weave)

평조직을 경 또는 위로 확대하여 경 또는 위 방향으로 두둑을 나타낸 조직.

* 드레스 리넨(Dress Linen)

리넨,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하여 평직, 사자직, 이지직 등의 조직으로 18~30's(마번수)로써 제작한다. 무지염이라던가 날염한다. 염색사로써 격자 모양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 매듭사를 사용하여 거친 맛을 나타낸 것도 있다. 조직은 평직의 것이 많으나 사자직, 이지직도 있다. 세탁의 효과가 있는 원단이지만 방축 가공하지 않은 것은 줄어든다. 최근에는 폴리에스터와 혼방한 것이 많다. 폴리에스터와 리넨을 혼방하면 줄어들지 않고 주름이 생기지 않고 차가운 맛이 있다. 적당한 흡습성이 있어 여름용이다.

용도는 여름철의 원피스, 투피스, 블라우스, 스포츠 웨어 등으로 사용한다.